

# 昌德宮 後苑에 對하여

鄭 在 鏞

## 一、머리말

昌德宮 後苑은 東洋造景遺蹟中에 至寶의 存在로서 그 保存에 세심한 주의와 學術的 研究가 必要한 곳이다.

면적은 六一、九〇〇여평이다.

石造나 木造의 構造物은 造成된 후에 長期間 그 原形의 保存이 가능하지만 造景의 遺蹟은 自然의 生物임으로 끊임없이 生成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構造物의 保存처럼 정지되어 있지 않다. 나무한포기 풀한포기가 죽고 사는 변화는 논으로 추정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生物은 수명이 한정된 것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보완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변화하는 遺蹟을 원래의 안목으로 유지하기란 상당한 전문 지식과 훈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국조경의 몇날 특성을 살펴보고 본래의 調和를 찾아보고자 한다.

## 二、昌德宮 後苑의 沿革

朝鮮王朝가 一三九四年 一〇月 漢城으로 遷都하여 都城을 쌓고 景福宮과 宗廟를 建立한 다음 一四〇五年 別宮으로 昌德宮을 짓고 一四〇六年 이 別宮의 後苑을 造成하여 解慍亭과 仁昭殿을 지었다. 이때의 後苑이란 아주 협소한 경역이었다. 一四五九年 四月 景福宮에서 世祖가 昌德宮으로 옮겨오면서 대대적인 後苑의 造成事業이 이룩되었다. 여섯을

과고 閱武亭 無逸殿 등 殿亭을 새로 建立하였다. 一四六三年 世祖는 後苑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접된 民家 七三호를 철거시켰다.

연산군 때에는 이 後苑이 女姬遊宴의 장소가 되고 짐승을 放養하여 사냥 놀이도 했다. 一四九七부터 一五〇四年 사이에는 東西쪽의 民家를 계속 철어내고 後苑을 넓혔으며 인접한 成均館마저도 옮겼던 것이다. 外部人이 이 後苑內에서 벌어드는 遊宴을 본다고 하여 담장을 더욱 높이고 차경을 했었다.

연산군은 末年에 瑞葱臺란 경회루 같이 큰 樓를 建立하기 시작하여 樓앞에는 뱃노리를 할수 있는 못을 파다가 中宗이 즉위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一五九二年 壬辰倭亂이 일어나 二〇年間 昌德宮 後苑은 폐허가 되었다. 그후 一六一〇年 光海君이 宮을 복구하면서 後苑에 映花堂과 亭子를 짓고 기이한 수목과 화려한 구조물을 조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昌德宮 後苑의 모습은 一六三六년 인조때에 造成되었다. 歎逝亭(후에 소요정) 雲影亭(후에 배극정) 淸漪亭을 짓고 玉流川을 만들고 御井을 뚫던 것이다.

一六四二年에는 觀德亭 一六四四年에 尊德亭 一六四五年에 醉香亭(喜雨亭) 一六四六年에 碧荷亭 一六四七年 聚勝亭 觀豊亭(榮民亭)이 建立되었다. 一七〇四年 肅宗은 大報檀을 造成하고 一七七六年 英祖는 奎章閣을 짓고 正祖는 芙蓉亭을 改築하였다.

一八二八年 純祖는 士大夫의 生活을 즐기기 위하여 民家양식의 演慶堂을 建立하고 一九二一年 璿源殿이 建立되었다. 現在 쓰는 秘苑이란 이름은 日帝때 지어진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 보면 太祖때는 後園 定宗實錄에서는 北苑 北園、英祖실록에는 禁苑이라 했는데 역대 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後苑이란 명칭이다.

우리의 造景은 園의 개념보다 苑이 더 적합한 뜻이며 庭園을 造成하는 것보다 後苑을 조성하였다. 後苑의 이름이 우리 조경의 特性을 잘 나

다낸 것으로 보인다.

### 三、機 能

昌德宮 後苑은 公園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王이나 宮人 등 몇 사람의 소요처로 조성되었다. 그러기에 民衆의 인 기능이 없다. 여기에 많은 관람객을 투입함으로써 후원본래의 기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오게 된다.

朝鮮歷代 王中에 昌德宮後苑을 조성한 王을 보면 世祖, 광해군, 仁祖 英祖, 正祖 등 어려운 역경을 겪고 남은 창업주와 깊고 높은 학문의 숭상과 조화의 안목을 가진 군주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기존의 질서속에 억매여 不自由로운 속박으로부터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려는 本然의 人間의 안식을 갈구하는 一面을 볼 수 있다.

광해군은 후원조성의 이유로 심신이 피로할 때 요양할 곳이 있어야 하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帝王도 生命의 한계속에 던져진 한 人間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自己앞에 막아선 一切의 제도와 인연과 物質을 떠나서 自然의 自足속에서 소주한 人間의 心意에 도달하는 통찰의 엄숙한 영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많은 구수를 벗어나 人間本能의 즐거움으로 自由를 누리거나 治者로서 수많은 번민을 해소하고 선정을 베푸는 治道의 수양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조경의 思想이 大自然의 順理속에 우주의 섭리를 느끼고 속세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색하며 原初의 復歸로 素朴 自足하여 不老 長生하는 仙景의 造成에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六三四年 百濟武玉은 부여의 宮南에 못을 파고 方丈仙山을 造成하였다. 新羅 文武 王은 六七四年 慶州 月城 東쪽에 苑池을 造成하여 三神島 雁鴨池中의 三島)와 巫山 一二峰을 만들었으며 一三四三年 고려 忠惠王은 平南成川의 東明館에 巫山 一二峰을 만들고 降仙樓 通仙樓 등을 建立하였다.

南原 廣寒樓의 연못속에 봉래도 방장도 영주도의 三神島가 造成되어

있으며 一四二二年 朝鮮太宗은 景福宮에 연못을 파고 慶會樓를 건립하고 一五〇五年 연산군이 萬歲島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神仙思想을 中心으로 造景空間을 造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昌德宮 後苑은 깊고 아늑한 自然의 섭리를 느끼고 無欲虛心의 경지에 도달하여 自足하고 사색하는 공간이다. 구축된 人間의 번민에서 벗어나 초속적 自由를 누리는 안식처이며 주어진 人間의 생을 초월하여 仙景에 노니는 救道場이었다.

이 후원속에는 남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獨立된 自我를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절대의 공간 유지가 필요하다.

### 四、地 勢

漢陽을 王都로 정할 때 無學이나 河崙 李陽達의 風水說에 따른 각기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鄭道傳의 주장에 따라 北岳을 鎮山으로 하여 좌에 洛山의 靑龍 右에 仁旺의 白虎를 두고 安山을 南山으로 하여 景福宮이 놓여졌다. 別宮인 昌德宮은 正宮인 경복궁과 다르게 洛山의 줄기한 대목을 터잡아 山勢에 알맞게 造營된 宮이다. 昌德宮을 지을 때 洛山의 山勢를 파괴하지 않고 自然의 생김새에 따라서 宮殿을 建立하였기 때문에 宮殿의 배치가 특이하다. 一八세기에 서술된 李重煥의 擇里誌中 卜居總論의 地里에서 사람의 집터는 陽氣를 많이 받아야 하므로 햇볕이 많이 비치는 곳이 제일 좋고 主山은 수려 단정하고 맑고 밝으며 연약 아담한 것이 제일이며 뽕어내린 산맥이 나약하고 둔하여 생기가 없거나 혹은 산맥이 무너지고 기울어져서 吉氣가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 했다.

그리고 토질은 흙과 모래가 굳고 조밀하며 우물이나 샘물은 맑고 차야 한다. 흙빛이 붉은 粘土거나 검은 砂礫 黃土等이면 죽은 땅으로 샘물에는 반드시 嵐障이 있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고 했다. 무릇 물이 없는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산은 반드시 配水를 얻은 후에야 묘미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이 흘러들고 흘러 나간 이치에 합당해야 강산

의 정기가 길한듯 있다고 했다.

山形에서 한양의 삼각산은 東南方 백리밖에서 보면 푸른 하늘에 솟아 있고 전면은 평평하고 西北은 높게 막히고 동남은 멀리 트여서 自然의 이름난 터가 된다. 삼각산 동봉산이 있어 돌봉우리가 매우 맑고 수려하여 수많은 불꽃이 하늘로 치받는 것 같고 별다른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다. 다만 이산은 보필이 없고 또한 골짜기와 동네가 적다 성안에는 白岳과 仁匠의 石勢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殺氣없는 松岳만 못하다고 했다. 흙빛은 깨끗하고 굳고 회여 길에 밤을 떨어 트려도 주위 먹을수 있을것 같으므로 한양에 人士가 막히지 않고 맑고 영리한 점은 많으나 한스러운것은 사내다운기가 없는것이라고 했다. 이는 朝鮮時代의 卜居의 안목을 살펴본 것이다. 現在 昌德宮 後苑의 土質은 희고 깨끗한 마사토이며 御井이나 냉천등 지하수가 곳곳에 솟아나는데 물이 차고 깨끗하다.

옛날에는 맑은 개울이 昌德宮 西쪽으로 흘러갔고 東쪽으로는 현 창경원 구안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愛蓮池 芙蓉池 반도지 등은 물이 넘칠 만큼 후원내에 지하수가 솟아 맑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어느 작은 산자락하나도 짙린곳이 없었고 步道는 自然의 지세를 따라 넓었다 좁아졌다 하여 굴곡의 윤치를 더하면서 설치되었으며 산을 무너뜨리거나 짜르면 吉氣가 없어져서 인제가 나지 않는다는 택리지의 기록처럼 절대로 산세를 파괴한 곳이 없었다. 배수의 묘리를 얻어 택한 택지이므로 비가오고 눈이와도 자연의 지세 자체가 배수처리가 잘되고 사태가 날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自然의 지세를 파괴한 보도가 생기고 식생이 파괴되면서 유사가 흘러 내리게 되었다.

### 五、植 生

一九七五年度 昌德宮 事務所에서 調査한 자료를 보면 활엽수가 八七% 침엽수가 一三%쯤 된다. 그리고 一九七三年 三月七日 조경학회가 실시

한 昌德宮 宮苑造景 세미나에서 민경현씨가 발표한 植生을 보면 목본 植物의 종류는 一〇二種으로 자생종이 八七종이며 도입종이 一六종이고 침엽수가 一八종으로 외래종이 七종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고목 중에 一七%의 침엽수가 섞여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목이 六一% 관목이 二一%로서 활엽 喬木속에 二三%가 참나무이고 一三%가 단풍이며 針葉 喬木중에 三〇%가 소나무로 되어있다. 식생이 老齡林分에 속하여 중 소경목의 차대 임분구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灌木類와 지피식물의 제거로 林地가 노출되어 토사 유출은 물론 산림의 有機體的 기능이 마 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좀 검토해 볼것은 어떤 나무가 昌德宮 後苑의 본래의 나무이고 어떤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이 후원의 모습을 변형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一九七六에 昌德宮事務所가 서울 林業시험장의 지도를 받아 調査한 巨木目錄을 보면 수령이 약 三〇〇年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를 調査한 것인데 흉경이 一八五cm와 一八〇cm에 으르는 거목은 느티 나무가 가장 오래되었고 전체 거목 七九本중에 三七本이 느티나무다. 다음이 흉경 一〇〇cm와 九〇cm의 은행나무가 二本이며 흉경이 九〇cm에서 七〇cm에 이르는 회화나무가 二本 주목이 一〇本 밤나무 二本 매화 一本 天然記念物 第二五二號로 指定된 수령 六〇〇年 추정된 다래나무 一本과 天然記念物 第一九四號로 指定된 향나무와 주염나무 一本 즉 백二本이다. 이 거목들 외에 一〇〇年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느티나무가 七〇本 참나무가 五三本 회화나무가 一七本 은행나무가 二本 은행나무가 六本 암기름나무가 一本 밤나무 一本 수양버들 一本 철쭉등이 있다 근년에 들어온 나무는 회양목 향나무 사철나무 다향송 신향나무 라이락 무궁화 등속이다. 특히 구전암의 가이쓰가 향나무는 일제시대에 심은 것으로 우리는 이런 공간에 짐을 억누르고 질투르게 음침한 그늘을 주며 사철의 변화도 없고 통풍도 안되는 침엽수 계통의 나무를 심지않는다 관목은 구수나무 싸리나무 누오나무 철쭉 때독나무 동굴고사리 다래나무 머루나무등이 가득히 잉여있었고 억새 맨unk 등 산풀이 자연스럽게

수림의 表面을 덮고 있었다. 지금 이러한 관목류의 보식 사업이 한창이다. 원래 창덕궁이 조성되기 전의 식생은 북악의 松林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활엽수 계통의 수종으로 모두 바꾸어서 松林은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활엽수 수림속에서 소나무는 생존경쟁이 안된다. 지금있는 소나무는 八〇年 内外의 것들이며 老松은 몇포기 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소장의 동렬도에도 松林의 표현은 많이 없다.

이 후원의 나무는 사철의 드러남이 완연한 식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돌배 밤 감 앵두등 과일나무도 있고 백당나무 좀작살나무 개벗나무 산뽕나무 생강나무 귀룽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신품과 녹음과 열매와 단풍이 아름다운 自然스러운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人工적인 관상수는 심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이러한 관상수는 오히려 부조화가 된다. 그리하여 토끼나 노루 다람쥐와 평이나 못 새들이 날아들어 자유롭게 서식하고 겨울이면 삭막한 나무의 손시린 고독을 느낄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自然의 순리를 따라 自然에 同和하려는 깊고 유현한 조화를 가장 중요시한 것이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하거나 토질을 번질시키는 일은 하지않았고 토질에 적응되는 나무를 심었다. 습지면 버들을 심고 산 등성이에는 떡갈나무 굴참나무와 싸리나무등이 무성하여 인공으로 조성된 숲인데 전혀 인공시가 하여지지 않는것 같은 自然스러운 숲씨로 조성되었다.

## 六、恠 石

괴석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演慶堂內 사랑채 앞이나 정자앞 大造殿 후원의 석단이나 宙舍樓앞 석계단에 배치하였다. 恠石臺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八角形 四角形 圓形등 괴석의 모양과 조화되게 만들었다. 一壇으로 된것과 二壇으로 된것이 있다. 이 괴석대는 무늬가 없는것도 있고 모란문 사자문 화문을 조각한 것이 있다. 괴석은 수성암 현무암등인데 화강암은 없다. 현재 창덕궁에 남아있는 괴석은 인정문앞 잔디밭에

七개 연경당 장락문앞에 一개 연경당내 사랑채앞에 八개 반도지 옆에 一개 氷泉앞에 一개 주합루앞에 대석만 一개가 남아있다. 특히 연경당에는 한괴목 뿌리에 二個의 恠石을 박아서 기이한 운치를 내고 있으며 사랑책앞에 方形의 石蓮池가 있다.

## 七、亭 榭

이 後苑內의 建物은 池中 山麓 樹林속에 自由自在로 배치되어 造苑의 調和를 더 한층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있다. 地形과 주의 환경에 따라 入工과 自然의 융합을 이루고 크고 작은 형태와 各形各색의 기교가 넘친다. 四角에서 八角에 이르는 平面과 기와와 초옥의 형태 및 樓와 堂 亭子의 크고작은 규모가 우리나라 造苑空間속에 배치된 構造物中 가장 代表的으로 年代나 建築수법에 있어서 따를 건물이 없다. 玉流川 주위에는 御井을 中心으로 淸漪亭 逍遙亭 太極亭 籠山亭 翠寒亭이 있다. 이



圖 1. 演慶堂內의 괴목에 恠石 배치모양

곳의 정자는 一六三六年(仁祖一四年)에 造成되었는데 泉石의 승경에다  
 심처럼 기단을 만들고 아담한 정자가 숲속에 배치되었다. 淸漪亭은 正  
 面一間 측면 一間의 단층 翼工 초가집이다. 四角平面에 八角屋蓋를 얹어  
 가느다란 둥근 기둥을 세우고 기둥위에 창방과 翼工을 結構하였다. 여  
 기에 八角으로 짜여진 도리리 장허가 얹어져서 공포를 받고 사각모양의  
 연목이 얹어지고 짙은 지붕을 이고 지붕에는 절병통 같은 상투가 올  
 려있다. 이 집은 주위 자연속에 소박하고 간결한 초옥의 멋이 잘 어울린  
 다. 逍遙亭은 정면 一間 측면 一間의 사모 단층의 인공집이다. 鷄子欄  
 干을 두루지 않고 어이동자가 하방에 놓이고 그 사이에 구창을 끼고 돌  
 란대를 짠 소박한 난간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되었다. 이곳의 정자  
 들은 自然 泉石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나직한 계곡에 살짝안긴 유현  
 한 정취가 느껴진다. 이 정자에 앉아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창공에  
 뜬 구름과 우거진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 속에 어찌 속세의 번뇌를 잊지  
 않을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거니는 공간이 아니라 두세사람이 거닐며  
 獨立된 自我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聚奎亭은 玉流川을 내려다 보는 공간에 놓여 林間의 보도를 걷다가  
 쉬어가는 위치에 알맞은 집이다. 凌虛亭 淸心亭은 원시림의 초연한 숲  
 속에 외따로이 떨어져 은둔의 안식처 처럼 깊숙히 숨어있다. 이 정자에  
 앉아 새소리, 나뭇지는 소리, 숲속에 비오는 소리를 들으면 무아의 경지  
 에 이를것 같다. 尊德亭 觀覽亭 勝在亭 砥愚亭이 있는 공간은 석교도  
 있고 석분에 괴석도 배치하고 方形이나 曲線의 人工的 재주가 가해진  
 못도 있으며 玉流川같은 自然의 절경이 아니라 인공과 자연이 적절히  
 융합된 그런 공간이다. 勝在亭은 正面 一間 측면 一間의 단층 사모 지붕  
 의 인공집인데 팔각형 초석위에 가느다란 원주를 세우고 완자 무늬의  
 分間이 윤치있게 달려있다. 난간은 亞字交欄으로 공예적 손씨가 엿보인  
 다. 오색 단청을 한 집으로 통로가 앞뒤로 나 있다. 尊德亭은 六角의  
 주심포정자이다. 池中에 뜬 형식의 정자로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육  
 각의 원주 정자를 짓고 처마에 잇대어 퇴칸을 달아내어 지붕이 겹쳐진



圖 2. 宙合樓와 魚水門間植樹壇의 전경

모양이다. 그러나 서로 분리된 건물로 가진 재주를 다하였다. 본정자의 기둥사이 창방아래로 빗살무늬와 꽃 무늬의 교창이 앞뒤로 반반씩만 들어졌다. 빗살무늬 아래는 문살주와 인방이 짜여지고 꽃 무늬쪽은 낙양각을 내어 용상의 寶蓋를 연상케한다. 각 기둥위에 서까래는 선자연을 틀어 부채살처럼 예쁘게 퍼져있다. 퇴칸은 가느다란 원주가 각귀마다 세개씩 열립하였는데 공포는 중심포이고 도리위의 갈모산방은 처마의 곡선을 휘어주고 추녀 좌우로 方椽을 걸었다. 정자의 바다는 모두 마루를 깔았고 본 건물은 주칸 사이에 통혈관이 짜여지고 퇴칸은 卍字난간이 낮막하게 둘러졌다. 이 건물은 희귀한 六角을 취하면서 하나의 공예품처럼 무리없는 조화를 주고있어 공장의 뛰어난 재주를 엿보인다.

觀覽亭은 부채모양으로 지는 정자다. 半島池의 물가에 서 있는데 內錐形礎石 위에 가느다란 六개의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받았다. 도리받침 장혀 아래로는 기둥몸에 잇대어 낙양각을 달았고 서까래는 方椽에 훌치마이며 지붕은 추녀마루 여섯개가 각각 세개씩 모이고 그 사이에 용마루가 설치했다. 이 집은 지나친 재주를 부려 구조상은 약간 불안정하여 보수가 잦다. 筱遇榭는 正面三間 측면 一間의 맞배지붕의 익공집이다. 三면은 모두 마루이고 一間은 개방하고 三間은 방을 꾸몄다. 개방칸과 방 사이에 井字 살창의 분합문을 달아 벽을 삼았다. 연경당 뒷문 동편 산 자락에 석단을 쌓아 정면 一間 측면 一間의 배모진 정자가 濃繡亭 이다. 方柱를 세웠는데 벽이 없고 완자 무늬의 四分間문이 달려있다. 문을 모두 위로 열어 매어달면 완전히 개방되게 되었다. 지붕은 겹 처마이며 지붕위의 절병통이 놓여졌다. 정자 기둥밖으로 쪽마루가 깔리고 法首가 있는 조그마한 난간이 둘러졌다. 건물 주위는 돌난간을 돌리고 전면만 출입을 위한 石階가 놓여있으며 석단에는 고목의 철쭉이 윤치있게 어울려서 한적한 멋을 준다. 원래 이 집은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한 조화가 더우 좋다. 方形的 愛蓮池에는 연꽃을 심었던 곳이 더 장대석으로 축조한 연못 속에 연하여 정면 一間 측면 一間의 정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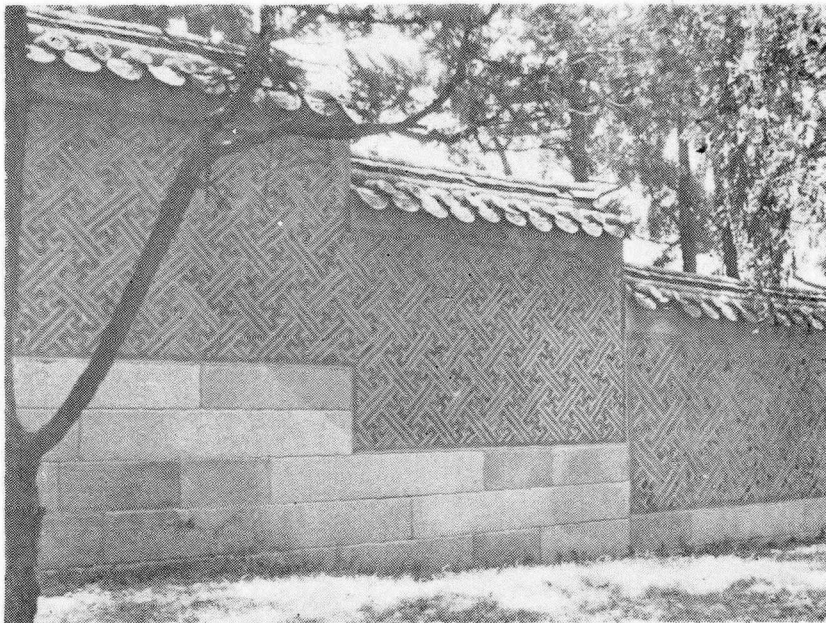


圖 3. 藥善齋

아련정이다. 柱間에는 낙양각이 배풀어졌고 亞字난간이 둘러있는데 난간쪽에 둘러진 쪽마루가 걸쳐 앉을 수 있도록 단을 지워 마루바닥보다 높게 설치되었다. 오색 아롱진 단청이 池中에 그림자를 띄우면 은은히 가라앉은 물속의 자태가 더욱 아름답다.

演慶堂은 一八二八年(純祖二八年)에 士大夫의 저택을 본떠서 지은 집이다. 이 建物은 구원전물과는 다른 民家이다. 왕의 침전으로 사용하면서도 燕寢과는 다른 주택이다. 演慶堂 앞에는 方形的의 소형 蓮池를 만들고 行랑채 중간에 소슬대문인 長樂門이 있는데 장락문 앞에는 석분에 괴석이 놓여있다. 長樂門을 들어서면 中門 行랑채가 또 있고 사랑채로 들어가면 長陽門이 있으며 內堂으로 들어가는 脩仁門이 있다. 이 집은 사랑과 내당이 한집에 붙어있는데 널찍한 마당가에는 나직한 담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다락을 만들어 내당에서 앞으로 뿔아내어 三間을 만들고 앞칸은 아궁이가 설치되고 나머지 二間은 온돌방이 되어있다. 이 집 모두 앞은 좁은 퇴칸을 이루고 뒤는 쪽마루를 놓아 사람이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행랑의 각 건물에는 칸마다 작은 온돌방이 되어 사람이 거처하게 만들어 졌다. 이 건물은 단청을 하지 않은 집이 되어 소박하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다. 芙蓉亭은 芙蓉池의 水中에 一部가 떠 있는 것 같이 자리 잡았는데 정면 三間 측면 五間의 다각형 지붕으로의 공작이다. 丁字와 亞字의 복합형 처럼된 묘한 建物이다. 방은 없고 전부 마루를 깔았는데 기둥 밖으로도 쪽마루를 깔고 계자난간을 하였는데 난간의 무늬가 기하학적인 변화를 다양하게 주고 있으며 통로는 東西南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연못속에 단청의 화려한 채색이 더욱 아름답다. 魚水門은 柱高가 一一、一四척 柱幅이 七、四촌되는 팔작 지붕의 一脚門이다. 心枋石위에 心柱木을 놓아 方柱가 놓지 못하게 하고 기둥 좌우에 龍枝板을 붙여서 昌枋을 보강하고 下枋이 心枋石 까지 내려서 짜여 있다. 四分閣의 살문을 달고 인방위에 용트림을 한 장식이 있고 그 위에 머름 창방형식의 가구물과 홍살창이 설치되었다. 창방 아래 風을 달아 장식하고 지붕의 기와도 이집에 알맞게 소형을 써서 건물이 아니라

목공예의 정교한 솜씨를 다하였다. 이 문 좌우 식수단에 작은 문이 있는데 문의 引枋을 사람이 넘나들기 편리하게 굽은 것으로 만들었고 지붕도 둥글게 모양을 내어 목관으로 이고 朴工도 弓形으로 휘어졌다. 이 문들은 산자락을 식수단으로 만들어 오르는데 석계의 출입문인데 그 윤치는 한우의 어느누도 따를 수 없는 조화를 이룬다.

宙合樓는 정면(四四、八尺) 五칸 측면 四間(三二尺)의 중층 팔작의 주심포집이다. 正祖元년에 건립되어 御眞을 봉안 하였던 것인데 후원내의 한 등성이 산자락에 석단을 쌓아 그위에 세운 우람한 다락이다. 구조는 경회루와 같은 연회장의 구조로 기록되었다. 英花堂은 正面 五칸(五四、〇五尺) 側面 三間(二〇、〇五尺) 단층 팔작의 익공집이다. 수종 一八년에 改建된 건물인데 과거를 보던 곳이다. 높직한 장대석 위에 퇴칸 三면을 모두 개방한 정자 건물로 거실 一間이 온돌방이며 二間은 대청이다. 三면에 퇴칸 마루를 깔고 계자 난간을 돌렸다. 단청을 했으나 소박한 건물이다. 특히 주합루 앞 산록은 장대석을 쌓아 植樹壇을 만들어 인공적인 조경 공간을 조성한 점이다. 이 露壇式은 창덕궁의 대조전 후원 仁政殿 후원 낙선재 후원 등에서 볼 수 있고 경복궁 교태전 후원과 德壽宮 德弘殿 후원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조선시대에 경사진면을 조경함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수법이다. 이러한 석단의 구간에는 큰 거목이 되는 교목보다 모란 앵두 매화 철쭉 단풍 등속의 나무가 심어지고 석분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창덕궁내의 담장을 보면 외과 담과 丙담의 엄연한 구별이 있었다. 외과담은 사고석으로 쌓였고 건물 가까이 설치되는 내담은 전담이거나 화담 또는 土石토담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의도는 調和의 인 높은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사고석담은 외과담으로는 견고성이 있어도 人間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는 전담이나 토담이나 화담과는 견출 바가 못된다. 仁政殿 大造殿 뒷편도 전담이며 경복궁 자경전 담이나 덕수궁 석어당 동편담 등 궁의 건물 가까이는 모두 전축담이거나 화담이지 전면 사고석담이 없었던 것이다.



八、연 못

창덕궁 後苑에는 芙蓉池 愛蓮池 演慶堂 앞 蓮池 半島池 尊德亭 앞 연지  
 몽담정 蓮池가 있다. 이 중에 芙蓉池와 愛蓮池 演慶堂 앞 蓮池 몽담정 蓮  
 池는 모두 方形이며 반도지는 曲線의 못이다. 백제시대의 부여宮南池  
 는 曲線의 못이며 신라 東宮의 雁鴨池는 曲線과 直線의 적절한 배합이  
 調和를 이루었는데 建物이 建立된 호안은 直線으로 쌓고 바라보는 공간  
 의 호안은 曲線으로 축조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경회루는 方形의 못으로  
 대담한 직선만으로 구성되고 못속의 섬도 方形의 장대석 석축이다. 이  
 직선의 장대석축조 수법은 이미 新羅 雁鴨池 直線호안에서 볼 수 있는 수  
 법이었다. 부용지는 三四、五 m × 二九、四 m 의 三〇七坪의 못이며 그 속  
 에 지름이 九 m 되는 원형섬이 있다. 이 섬에는 자연석을 놓고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愛蓮池는 二六、二 m × 二六、二 m 의 正方形으로 二〇八坪  
 이 되는 연못이다. 연경당 앞의 못은 一三、五 m × 一五 m 로 넓이가 六  
 一坪이며 尊德亭 앞의 못은 一四、二 m × 一三 m 로 五二坪이고 몽담정 蓮  
 池는 一〇、二 m × 七、五 m 로 넓이가 一三三坪에 불과한 작은 못이다. 반  
 도지는 호안길이가 一五九 m 의 굴곡진 곡선의 못인데 동궐도에 보면 이  
 곳도 원래 方形의 작은 못이 있었던 것을 일제시대에 곡선의 큰 못으로  
 만든 것이다. 이 반도지의 호안은 한국의 축대나 호안을 싸는 전통적인  
 수법으로 쌓여져 있지 않아 不調和的이다. 이 중에 芙蓉池와 愛蓮池는  
 배논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궐도에 보면 배가 떠있다. 경복궁 경  
 회루의 못도 배논이를 하던 못이다. 慶州안압지에서 신라시대배가 완  
 전하게 出土되어 당시 배논이를 하던 못임을 알 수 있었다.

九、맺는말

창덕궁 후원은 산세를 따라 조성되어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유지하였  
 고 환압수로 구성되어 계절의 완연한 변화가 있었으며 관목과 교목이

서로 어울려 자연의 식생이 유기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나무에 절대  
 로 전지하거나 변형시키는 재주를 부리지 않고 담담하고 순박한 멋이  
 있었다. 동물이 자유로히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조물이 자연을  
 억압하지 않았다. 花園를 조성하지 않고 관상수를 심지 않았다. 피석을  
 연경당 주합루 승재정 주위에 배치하고 담은 調和를 생각하여 외담은  
 사고석으로 내부담은 화담과 전담으로 축조하였다. 경사면의 처리는 植  
 樹壇을 만들었으며 구조물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부용정 주위는 인공  
 과 자연의 절반쯤 배합에서 반도지 주위는 자연이 인공보다 더 많이 배  
 합되고 옥루천 주위에는 최소한의 인공으로 자연에 융화시켰다. 연못은  
 方形이 기본이며 조선시대 연못조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조경 공  
 간에 놓이는 다양한 정자나 樓가 모두 이 속에 있으며 하나도 같은 모양  
 이 없다. 후원내에 배수시설을 따로 하지 않았고 자연 배수로 처리되  
 었으며 곳곳에 맑고 찬 지하수가 솟아난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성  
 된 공간이 아니라 왕과 몇사람의 선택된자를 대상으로 조성되었다. 현  
 실의 번민에서 自我救濟의 수단으로 仙景의 유현한 경지를 조성하여 人  
 間의 自由로운 自足으로 不老長生을 회구한 공간이다.

관리에 있어서는 늘 生成 변화하는 생물 생태의 조화를 잃지 않게 끊임  
 없는 보완이 필요하며 후원의 특성을 유지시킬 조경전문가가 있어야 하  
 다. 그리고 이 중요한 조경 유적의 생태 등 장기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引用文獻

- 一、韓國造景學會誌。一九七三年。一〇月通卷第一號
- 二、朝鮮王朝實錄
- 三、宮闕志。昌德宮編
- 四、서울特別市史 古蹟編 一九六四年
- 五、昌德宮 樹木調査表 文化財管理局。
- 六、擇里誌 李重煥

(國立中央博物館 普及課長)